

하이브리드 품은 셀토스…소형 SUV 판도 바꾼다

6년 만에 완전 변경 '셀토스' 광주 생산…오늘부터 계약 시작

동급 최고 수준 실내·전동화 탑재…캠핑부터 패밀리카까지

기아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의 계약을 27일부터 시작하며 국내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로 돌아온 신형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판매실적 향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기아에 따르면 '디 올 뉴 셀토스'는 2019년 1세대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33만대 이상 판매된 기아의 대표 소형 SUV다. 이번 2세대 모델은 정통 SUV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즈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반영해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기아는 신형 셀토스를 앞세워 소형 SUV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완전 변경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신규 도입이다.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을 발휘하며 최대 복합 연비는 19.5km/l에 달한다. 스마트 희생 제동 3.0과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주행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운전 중 브레이크 조작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실내 V2L(전기차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하는 기술)과 P단 정차 시 엔진 공회전 없이 고전압 배터리를 통해 편의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를 탑재했다. 전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던 전동화 기능을 캠핑이나 야외 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193마력으로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했다.

차체는 차체 강성을 강화한 K3 플랫폼을 새롭게 적용했다. 초고장력강과 핫스탬핑 적용 비율을 확대해 차체 평균 강도를 20% 향상했으며 이를 통해 충돌 안전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기아 측의 설명이다.

안전·주행 보조 사양도 동급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비롯해 차로 유지 보조, 운전대 그립 감지,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다. 9개 에어백과 후진 가이드 램프 등



디 올 뉴 셀토스.

〈기아 제공〉

기본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실내 공간 역시 경쟁력을 갖췄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축간 거리를 각각 40mm, 60mm 늘려 2열 레그 룸과 헤드룸이 크게 개선됐으며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2열 거주성을 확보했다. 러기지 공간은 536ℓ로 소형 SUV 가운데 최대 수준의 적재 용량을 갖췄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파노라mic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직관성을 높였으며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2열 리클라이닝 시트 등으로 장거리 주행과 일상 활용 모두를 고려한 구성을 갖췄다. 상위 차급에 적용되는 편의 사양을 적극적으로 끌어온 점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2477만원부터,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2898만원부터 시작

한다. 기아는 이달 말부터 차량을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광주 공장이 셀토스 생산의 중심이다 보니 매주 특근을 하는 등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셀토스가 기준에도 인기 차종이었던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확장되면 생산이 더 활기를 떨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불 붙은 전기차 가격 전쟁…현대차·기아, 전기차 부담 확 낮춘다

금리 2.6%p 인하·가격 할인 정비·인증 서비스 등 강화도



현대차 아이오닉5(왼쪽부터),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610만원의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앞서 기아도 전기차 가격 인하와 금융 혜택 강화를 통해 가성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아는 EV5 루어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 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으며 0%대 저금리 할부와 간기보장 유예형 할부 혜택을 확대했다.

새로 출시되는 EV5 스텠다드 모델은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 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아는 EV3 GT, EV4 GT, EV5 GT 등 고성능 전기차 모델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는 가격·금융 혜택과 함께 전기차 정비·인증 서비스도 강화한다. 전국 서비스 거점에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 부분 수리가 가능한 거점을 늘리는 등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춰 대중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가 연초부터 전기차 혜택 강화에 나

선 배경에는 테슬라와 BYD의 빠른 성장세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만 9893대를 판매하며 1위 브랜드인 기아(6만 609대)를 1000대 미만 차이로 추격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주니퍼'를 들여와 국내 판매 가격을 약 600만원 낮춘 점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모델Y는 지난해 5만 397대가 팔리며 단일 모델 기준으로 기아 EV3(2만 1254대)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1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 역시 아토3, 씰, 씨라이언7 등을 앞세워 6000여대를 판매하며 가성비 전기차 브랜드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아 관계자는 "가격·금융·서비스·잔존가치까지 전 분야에서 고객 혜택을 강화해 타보고 싶은 전기차, 계속 찾게 되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무쏘·액티언 HV 설 명절에 시승해보세요"

2월 6일까지 신청…4박 5일간 무상 체험

KG 모빌리티(KGM)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향길 차량을 제공하는 '미라를 설 귀향 시승 이벤트'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승 행사는 고객이 설 연휴 동안 무쏘, 무쏘EV, 액티언 하이브리드,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KGM의 주요 모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응모는 2월 6일까지 KGM 누리집 내 이벤트 페어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만 26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경력 1년 이상)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첨자는 2월 10일에 발표된다. 당첨된 고객은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4박 5일간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선정된 고객은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에서 대형 캡슐 마シン을 통한 렌탈 추첨을 통해 시승 차량을 뽑게 된다. 각 차량의 트렁크에는 한우·굴비·홍삼 세트·송이보석꿀·과일 등의 귀향 선물이 마련될 예정이다.

KGM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G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정기 검사 카톡 전자문서로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 검사의 수검 안내 개선을 위해 카카오톡을 전자문서 시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자들이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만료일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내 검사소 안내를 통해 검사 예약까지 가능하다.

TS는 이번 전자문서 기반 안내 확대를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

